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9월 6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66:1-6

복음에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언약으로 도전하며 사는 자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성경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답이 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축복이라는 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렘33: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 일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새로 만들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되고 역전이 됩니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일어나는 일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아는 자에게는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전도에 눈이 열리면 드디어 현장이 보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 한 가정, 한 현장을 만나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모를 뿐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전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들어온 말씀이 언약이 되고 인생 그림이 되면 정복합니다.

1.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할 일은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뜻일 것입니다.
2) 그러므로 2절 뒷 부분에서 그냥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3) 3절에서는 악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 언약의 피를 능멸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4절은 그런 제사를 드린 자들에 대한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두려워 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4) 삼상3:14에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5) 4절 중간 부분에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해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라도 해야 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나 혼자라도 따라 가면 그것이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6) 5절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너를 쫓아낼지라도 내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7)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을 놓을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만물도 내가 만들었으므로 너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두려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돌 볼 것이다.
8) 그러나 네가 만일 내 언약을 배반하고 성결해야 할 그 예물의 언약의 피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사단의 유혹에 걸려 저주를 받게 하고 네가 두려워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인즉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9)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도와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나는 지금도 모든 것을 다시 만들 수도 있다.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그러면 네가 두려워 하는 것을 내가 제거해 줄 것이며 혹 너희 원수가 너를 쫓아낼지라도 오히려 네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 결론적으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고 예배를 바로 드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올 해 우리 교회가 잡은 말씀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운동입니다. 진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세를 갖추어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하실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고 함께 언약을 잡고 예배에 참여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11) 사55:2-3에서는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귀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고도 정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밋의 삶을 살고 황제의 작품을 남기길 바랍니다.

2. 한 가지만 더

1) 응답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후속적인 사역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 중 하나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도 병든 자는 고쳐 주시고 용서가 필요한 여인에게는 용서도 해 주셨습니다.
2)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로 마음이 돌아선 경우도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과 도우심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3) 깨끗이 복음 하나로 끝내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는 자세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음 외에 육신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노력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전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복음 외에 한 가지만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 번 생각해 보고 내게 붙여진 모든 영혼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던 다윗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